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들 기량 겨뤄

500여명 선수 참가 ‘제1회 장수군 전국 초중고 나르샤 배드민턴대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16일 새롭게 문을 연 장수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장수군 전국 초중고 나르샤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체육회, 장수군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장수군이 후원했으며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368팀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장수 종합실내체육관에는 선수들의 힘찬 스매싱과 관중들의 열띤 응원으로 뜨거운 열기를 더했으며 선수들은 승패를 넘어 스포츠맨십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대회는 전국 각지의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참가해 스포츠를 통해 경쟁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며 선수단을 포함해 가족 등 약 1,000여 명이 장수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특히 장수군은 지역 학생들의 체육 증진과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 참가비를 전액 지원해줬고 선수 106명이



장수군은 지난 16일 새롭게 문을 연 장수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장수군 전국 초중고 나르샤 배드민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교의 명예뿐 아니라 장수를 대표해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그 결과 장수와 양민성과 백화고 광승민이 고등부 남복 2학년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장수중 이나영·김문서가 중등부 여복 1학년 2위, 장수중 정재윤·오윤서가 3위를 기록했다.

여기에 장계초 황현아·박세민은 초 등 3·4학년 남복에서 2위를, 박춘우·장계초 박태경은 초등 부녀 5·6

학년부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최훈식 군수는 “정정 자연속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가 전국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뜻깊은 추억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에 힘써 스포츠 도시로서 장수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19일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진안홍삼의 화장품 브랜드 가치 창출 세미나’를 열고 홍삼 연구 성과와 유럽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진안을 찾은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의 일정과 연계돼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진안홍삼, 화장품 산업 확장 모색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로 바티칸 수도원 연구 성과 공유

진안홍삼이 화장품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진안군은 19일 진안홍삼연구소에서 ‘진안홍삼의 화장품 브랜드 가치 창출 세미나’를 열고 홍삼 연구 성과와 유럽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화장품 기업, 관내 홍삼 관련 기업,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서는 △강광배 교수(산소존)가 ‘진안홍삼 유럽 진출 사례’를 주제로 기존 홍삼의 진출 사례와 향후 유럽 시장 진출 전략 방안 △올베르트 나르디 박사(로마기톨릭대학교)의 ‘의학에서의 한국산 홍삼’을 주제로 SIME 2025(이탈리아 미용의학회) 제 46회 대회에서 발표한 진안홍삼 연구 성과 공유 △아모레퍼시픽 조정훈 책임연구원의 인삼의 가치 확장을 위해 유효 성분의 화장품 혁신 응용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주재발표자를 비롯해 전북지역 화장품 기업 대표들이 패널로 나서 진안홍삼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추진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진안을 찾은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들의 일정과 연계돼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진안군이 홍삼 원물을 바티칸에 전달하며 시작된 교류가 연구 성과와 산업 확장 논의로 이어진 셈이다.

현동은 진안홍삼연구소장은 “진안홍삼은 우수한 품질과 과학적 효능을 바탕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며 “이번 논의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이 국내를 넘어 유럽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며 “군은 연구와 산업, 교류가 어우러진 지원을 통해 홍삼 산업의 세계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로컬JOB센터’ 누리집 개설

무주군이 군민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무주군 로컬JOB센터’ 누리집(<http://mujjob.or.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누리집에 접속하면 상단 주메뉴에서 JOB센터 소개를 비롯해 취업 지원(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동행 면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등), 구직자 및 사업장 맞춤형 취업 지원 절차, 농가 일자리 등 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사업체별 일자리 정보, 관공서 채용 정보 등의 일자리 소식, 구인(직원 채용)·구직(일자리 찾기)



신청, 알림 마당(각종 모집 요강, 지원 사업 공고 등), 무주군 기업 소개 등 주요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 누리집은 무주군 누리집을 통해 접속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무주군 로컬 잡센터’를 검색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여름 배추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이 무풍면에서 여름 배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발 600~800m 구간 3ha 규모(5농가 참여)에서 진행 중으로, 7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하리두’ 등 고온에 강한 품종을 정식했으며 9월에 배추를 수확할 예정이다.

여름 배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무주군은 올해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고온 견갑을 위한 ‘복합소재 지온성 필름’ 등을 지원했으며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빙속 배수 장비’와 ‘토양 병해 방제 예도 심열을 기술’이 고 있다.

특히 무주군은 고온 피해경감 기술 적용으로 상품률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자동화 기술 적용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심토파쇄기와 배추 자동 정식기 등을 지원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호남 IS 우수사례 공모전 전북 1위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5 ICT이노베이션 스페어 호남 IS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북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호남 IS 우수사례 공모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광역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주관하여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 및 프로젝트 성과 중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대회다.

올해는 AI·빅데이터·블록체인·클라우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성과가 출품되었으며, 무진장지사는 행정혁신 부문 대표 성과로 당당히 전북 1위를 차지했다.

공모전에서 무진장지사 농지는 행정리부 박근호 직원은 ‘AI를 통한 SAP 반복 업무 자동화’ 사례를 출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수상 성과는 농어촌공사 내부 행정업무 중 단순·반복적인 SAP 입력 및 처리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동화한 사례이며, 디지털 전환과 업무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